

국내 최강마, '두바이월드컵'서 무한도전

우승상금 600만 달러 '경마계의 월드컵'
1월5일부터 2월23일까지 9주간 개최
'트리플나인' '파워블레이드' 등 5두 출전

한국마사회가 2017년 다시 한 번 '두바이월드컵'에 도전장을 내민다. 올해 초 '두바이월드컵 카니발'에서 '석세스스토리'가 전(全)경주 입상의 성과를 올린만큼 이번에는 기대치가 높아졌다. 출전마도 '트리플나인', '파워블레이드'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강마다. 여러모로 관심이 쏠린다.

●두바이월드컵은 어떤 대회?

2016년 초 한국마사회는 한국경마 역사상 처음으로 두바이월드컵 카니발에 경주마를 출전시켰다. 많은 화제를 만들었다. 비록 예상성적의 무대였지만, 그동안 남의 잔치로만 여겼던 두바이월드컵에 첫 발을 내디디며 의미가 컸다.

두바이월드컵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1996년부터 시작된 대회다. 세계 유수의 경마대회와 비교하면 역사는 짧다. 하지만 막대한 왕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지금은 '경마계의 월드컵'으로 불린다. 국가 대항전 성격까지 더해져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의 켄터키더비, 호주의 펠머튼컵, 홍콩국제경주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회다. 우승상금은 600만 달러. 단일경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출전마 수송비는 물론 마주와 기수, 조교사 등의 참가경비도 주관사 두바이레이싱 클럽이 부담한다.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베테명은 운영하지 않는다. '순전히 경마만 즐기



트리플나인



파워블레이드

자'는 것이다.

●두바이월드컵은 어떻게 진행되나?

3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예선전 성격의 '두바이월드컵 카니발'이다. 1월5일~2월23일까지 9주간 개최된다. 장소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메이단(Meydan) 경마장이다. 총 경주수는 54개다. 매주 목요일마다 6개씩 경주가 펼쳐진다. 국제레이팅 95 이상의 세계적인 경주마들이 참가한다.

'두바이월드컵 카니발'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면 준결승전과 같은 성격의 '슈퍼 새터데이(Super Saturday)'출전자격을 얻는다. 3월 첫째 주 토요일에 펼쳐진다. 주관사 두바이레이싱 클럽이 출전자격을 준다. 경주마들은 '두바이월드컵

카니발'을 통해 주관사와 경마팬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 '슈퍼 새터데이'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 꿈의 무대 '두바이월드컵'에 출전한 다. 역시 주관사의 선택으로 결정한다.

두바이월드컵은 출전의사가 있다고, 혹은 국제레이팅이 일정수준을 넘었다고 그냥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다. 주관사가 경비를 부담하는 만큼 심사절차도 상당히 까다롭다. 한국마사회는 10월부터 마주를 대상으로 출전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트리플나인'의 최병부 마주를 비롯해 8명의 마주가 출전의사를 밝혔다. 마사회는 11월 두바이레이싱 클럽에 입사신청서를 제출해 7두의 입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마주 2명이 출전을 철회해 최종적으로 '트리플나인', '파워블레이드', '디퍼런트디멘션', '서

울블릿', '메인스테이' 등 5마리가 두바이 땅을 밟는다. 전반적으로 올해 초와 비교하면 출전마 두수와 능력이 크게 상향했다.

●2016년 두바이월드컵 카니발의 기억

올해 1월부터 2달간 진행된 '두바이월드컵 카니발'에는 '천구'와 '석세스스토리'가 세계 최강의 경주마들과 기량을 겨루는 눈여겨 볼 만한 전적을 거뒀다. '천구'는 편자가 벗겨지는 상황에서도 멋진 추임으로 5위를 기록했다. '석세스스토리'는 출전한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3위를 차지했다. 두 번째 경주에서는 세계 최강 경주마 '캘리포니아크롬'과 함께 경기를 펼치면서도 상대에 기죽지 않는 발걸음으로 입상에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트리플나인' 최병부 마주 "한국 경주마도 1위 해봐야죠"

'트리플나인' 세계적인 경주마와 경쟁력 충분
해외경주 좋은 성적 거두면 한국경마 전환점

2년 연속 연도대표마 '트리플나인'이 두바이에서 성공신화를 이어갈까. 한국마사회가 28일 두바이월드컵 출전마를 발표하자 경마팬의 관심이 뜨거워졌다. '트리플나인', '파워블레이드', '디퍼런트디멘션', '서울블릿', '메인스테이' 등 국내 최정상급 경주마들이 명단에 들어있어서다.

이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트리플나인'이다. 2년 연속 연도대표마 타이틀을 거머쥔 한국경마의 간판스타다. '트리플나인'은 국제레이팅 100 이상으로 세계적인 경주마와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다. 연령도 경주마로서 전성기라 한국마사회는 물론, 경마관계자와 팬들의 기대치가 높다. 통상 해외원정은 경주마에게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안긴다. 장거리를 이동해 생소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우리와는 다른 경주에서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마주 입상에서는 자신의 애마(愛馬)를 원정 경주에 출전시키는 것을 꺼려한다. '트리플나인'의 최병부 마주도 "나쁜 성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며 속내를 비쳤다.

빠아픈 경험을 한 차례 치른 뒤라 더 고민이 많았다. 기대주 '트리플파이브'가 지난 7월, 싱가포르 원정에 나섰지만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했다.

"상당히 실력이 좋은 경주마였지만 주로 환경도 다르고 정보도 부족했던 탓"으로 실패의 원인을 찾았다. '트리플파이브'는 싱가포르 원정의 후유증인지 귀국 이후 현재까지 휴양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트리플나인'과 함께 두바이 원정길에 나선 이유는 국내 대표 마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다.

그는 "올해까지 2년 연속 연도대표마를 거머쥔 경주마다. 과거의 통념을 깨고, 이제는 해외 경주에도 최정상급 경주마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한국경마에 여러모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2년이나 연도대표마를 했던 경주마다. 선구자의 정신으로 간다"고 했다.

올해 초 '석세스스토리'의 맹활약도 자극제가 됐다. "'석세스스토리'를 보니, 국내에 돌아와서도 회복속도가 빨랐다. 그 모습을 보니 오기가 생기더라. 파트Ⅱ 진입도 했는데, 이젠 두바이에서도 한국 경주마가 1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공교롭게도 두 경주마 모두 국내산 경주마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말 산업 발전에도 큰일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

출전거리는 장거리다. '트리플나인'에 최적화된 거리는 1800m 이상이란 생각에서다. "1800m 이상이어야 경쟁력이 있다. 현지적응



'트리플나인' 최병부 마주.

을 거친 뒤 1월 19일과 2월23일 장거리 경주에 출전하고 싶다. 김영관 조교사와 현지에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 '트리플나인'은 지금까지 아픈 적이 없었다. 그저 하나만큼은 정말 특별한 말이다"고 했다. '트리플나인'을 비롯해 한국 최초의 통합 삼관마 '파워블레이드'와 '디퍼런트디멘션', '서울블릿', '메인스테이'는 22일 검역을 마치고 현지로 떠났다. 현재 두바이 메이단 경마장에 입사했다. 순조롭게 현지 적응 중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렛츠런 홀스 매칭그랜트 3억7000만원 기금 기부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이 올해 처음 운영한 '홀스 매칭그랜트(Horse Matching Grant)'로 조성한 3억7000만원을 각 단체에 전달했다. 매칭그랜트는 기업에서 임직원이 내는 기부금과 동일하게 기업에서도 후원금을 내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가운데 하나다.

한국마사회는 매칭그랜트를 활용해 '홀스 매칭그랜트'란 새로운 방식의 기부문화를 만들었다. 렛츠런파크 서울과 부산경남, 제주에서 활동 중인 마주와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 등이 경주상금이나 개인성금을 렛츠런재단에 출연하면 렛츠런재단이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후원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해 3억7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남기태 마주의 경우 말산업계의 대표적인 기부천사다. 2003년부터 루게릭병 환자를 지원하는 '인터알리아 공익재단'에만 설립기금 80억원을 포함해 총 162억원을 기부했다. 정영식 마주는 경주마 이름으로 기부를 실천한 최초의 인물로, 올해도 서울효정학교 건립에 후원금을 내놓았다. 암 투병 도중 유명을 달리한 특정 조교사의 자녀를 위해 해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박남성 마주, 독거노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850만원을 출연한 문세영 기수 등도 홀스 매칭그랜트의 주요 참여자들이다.

김종건 기자

한국마사회, 공생협력 프로그램 최우수 등급

한국마사회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모기업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사내 도급업체 14개사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안전보건 제도개선, 안전문화 확산, 위험요인 관리 등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을 따냈다.

김종건 기자

'위니월드' 새해 맞이 무료입장 이벤트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의 톨플레이 테마파크 '위니월드'가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무료입장 등 풍성한 이벤트로 고객들을 맞이한다. 위니월드 VR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VR카드보드 소지자에 한해 1회 무료입장 이벤트를 시행한다. VR카드보드는 어린이 잡지와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이미 배포됐다. 2017년 3월1일까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위니월드 재방문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체험후기 이벤트도 1월31일까지 진행된다. 블로그, 카카오톡스토리, 카페 중 한 곳에 체험후기를 올린 뒤 위니월드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whinnyworld) 이벤트 게시물에 체험후기 주소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김종건 기자

<알립니다>

12월31일 1월1일 서울경마는 휴장해 이번 주 경마 출주표는 신지 않습니다.

NAVER 뉴맨 DdM 뉴맨

힘이 약하고, 중간에 시들어, 잘 안된다?!!

시도 때도 없이, 강한남자 뉴맨!!

원산지	사이즈	누백	중수
6.5이하	중수	제작	
6.5cm	1호		
6.8cm	2호		
7.1cm	3호		
7.4cm	4호		
7.7cm	5호		
8cm	6호		
8.3cm	7호		
8.6cm	8호		
8.9cm	9호		
9.2cm	10호		
9.5cm	11호		
9.8cm	12호		
10.1cm	13호		
10.4cm	14호		
10.7cm	15호		
11cm	16호		
11.3cm	17호		
11.6cm	18호		
11.9cm	19호		
12.2cm	20호		
12.5cm	21호		
12.8cm	22호		
13.1cm	23호		
13.4cm	24호		
13.7이상	중수	제작	

동.서.고.금. 남자의 힘!

수세기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남성들은 약해져 가는 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옥이나 실리콘 등으로 만든 링을 사용해 왔습니다.

'뉴맨'은 이러한 기존 링을 모토로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효과와 안전성은 극대화시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명칭의 발명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왜소하고 빠르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강직도가 약해지고 중간에 시드는 현상으로 고민인 남성들에게, 작용즉시 더 크고 강하며 중간에 시들지 않고 보다 오래 사랑을 나누도록 확실한 효과를 드립니다.

2005년 첫 출시 후 현재까지 11년 지속 성장, 일본과 중국에 지사 설립, 전 세계 20여개국 수출, 누적고객 120만이라는 기적같은 성공을 이룬 '뉴맨'은 힘이 있어서는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 사이즈를 약 5~7mm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중설계 되었습니다.

※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특허 제 10-0756243 호 (PATENT NUMBER)

발명의 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성기능 강화용 링

특허청

※ 국내 최초 유일 특허 ※

· 일본동경지사 T. 03-6233-8994 · 중국지사 T. 0433-286-5031

누적고객 120만! 20여개국 수출!

15일 사용후 효과 없을시 100% 반품 · 환불!

11년간 지속된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아직도 '뉴맨'을 안하셨나요?
망설이지 마세요!
작용즉시 변하는 최고의 남자!
제가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 뉴맨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사용후기가 있습니다.

T. 1577-5579, 010-7636-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리23 선일빌딩 6층 (주)케이앤케이 통신판매 허가 제2015-서울서초-1790호